

“짬뽕시대로에서 군산의 맛 즐겨 보세요”

근대역사박물관 짬뽕거리 '짬뽕시대로' 새이름 정해 연말까지 12개 업소 입점 지역 대표음식 마케팅 강화

“짬뽕시대로에서 군산의 맛 즐겨 보세요.”

군산시는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 만드는 짬뽕 거리의 이름을 '짬뽕시대로'로 정했으며 1차로 12개 업소가 입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 이름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했다.

짬뽕 거리에는 기존에 있던 빈해원, 흥영장, 장미관 등 3개와 시내권에서 옮겨오기로 한 수송반점, 리엔차이 등 9개가 먼저 입점한다.

이전하는 업소들은 연말 안에 짬뽕 거리의 빈 점포 등에 자리를 잡고 영업을 시작한다.

군산시는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내년에 추가로 입점 업소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점 업소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및 위생서비스 등 개선사업 지원, 특화거리 내 입점 영업소 간판 정비, 상수도 사용료 감면(조례제정 후), 식재료 공동구매



군산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짬뽕특화사업 추진 육성전략 및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 만드는 짬뽕 거리의 이름을 '짬뽕시대로'로 확정했다. <군산시 제공>

구축 운영을 지원하게된다.

또 짬뽕특화거리를 주제로 한 짬뽕페스티벌 개최 및 유명 셰프 초빙 이벤트 진행, 맛 체험 관광맛지도 제작·홍보, 입점자 경영컨설팅 및 친절교육, 블로그·SNS·TV 방송, 홈페이지 활동 등 적극적인 홍보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짬뽕 먹기대회와 짬뽕 전시회, 짬뽕 요리대회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짬뽕은 전국적 명성을

얻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 음식 가운데 하나라며 “짬뽕 거리를 옛 도심권, 시간여행마을 등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로컬잡센터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

고창군로컬잡(JOB)센터는 일자리 정책에 맞춰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고창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박람회는 고창군로컬잡(JOB)센터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대한노인회고창군지회취업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사진>

박람회에는 북부자농공단지의 라온푸드를 비롯해 라온푸드직장여리집, 온곡, E&G푸드, 대경스틸, NH유통(고인돌 휴게소), 웰파크시티, 국순당, 월드와이드서비스, 고창병원 등 10개 업체가 참여해 1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박람회에서 각 기업에서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센터는 이력서 작성과 면접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구직희망자는 현장에서 이력서 작성과 이력서용 사진촬영, 채용상담, 면접진행 등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김희진 고창군로컬잡센터장은 “고창 지역 여러 기업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읍사무소에서 취업박람회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 고창군로컬잡(JOB)센터는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군민 일자리 고민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 특산물 베리류 판매 확대 나섰다

황숙주 군수 등 서울서 판촉행사...쇼핑몰 입점 지원 등

순창군이 지역 농특산물인 베리류(아로니아,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판매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순창군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순창 베리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장경민 농업 순창군지부장, 유광희 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선재식 순창농협장, 이두용 구립농협장 등이 참여했다.

황 군수는 이 자리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1대 1로 만나며 농산물 판매에 열을 올렸다.

행사장을 찾은 고객들을 위해 블루베리

(100g) 1000개를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해 순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요즘 제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블루베리 물량이 쏟아지며 지자체마다 자체 브랜드 알리기가 치열한 가운데 이번 증정 행사로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앞서 황 군수는 지난 2월 밤을 비롯해 두릅, 매실 등 농산물이 유통되는 시기에 맞춰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해 서울 도심 유통매장을 직접 찾아 판촉행사를 열어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판촉행사 외에도 쇼핑몰 입점 지



원, 홈쇼핑 유통 지원 등 농산물 판로 채널 다양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청정지역 순창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의 홍보를 위해 군

차원에서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도시 유통 판매망을 개척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여름방학 특별전

20일부터 '꿈꾸는 에벌레' 전...3000여마리 선보여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전 '꿈꾸는 에벌레'를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연다.

특별전에서는 60여 종류, 3000여마리의 에벌레와 곤충이 선보인다. 곤충이 알, 에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성

장하는 과정도 관찰할 수 있다. 누에 실 뽑기 등의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문을 연다. 교육관 인근에는 지리산 뱀사골계곡과 육묘장, 백두대간 캠핑장 등의 피서지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tour)를 참조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에벌레를 감상하고 그 특성을 배우며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전주 한옥마을에 연못 품은 전통정원 들어선다

전주 한옥마을에 연못 등을 품은 전통정원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있는 전주공예품전시관 주차장 1396㎡(422평)를 습지와 공원 기능을 갖춘 전통정원으로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외에서도 공원을 즐길 수 있는 한류마당과 전주의 전통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투영 연못 등으로 정원이 꾸며진다.

또 바닥은 전통방식의 장대석 포장을 도입하고 한옥마을의 정취를 한층 더 곁

어울릴 수 있는 각종 전통시설이 들어선다.

꽃나루 가지를 병풍 모양으로 만든 '취병'과 햇볕을 피워 놓기 위해 세워두는 기둥 모양의 '정료대', 마을 어귀나 다리 등에 수호신으로 세운 사람 형상의 '벽수', 돌을 우뚝하게 파서 절구 모양으로 만든 '물곽' 등 옛 정취를 담는다.

시는 이달 공사를 발주, 연말까지 전통정원을 준공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씨 없는 수박 품평회' 이용견씨 대상

'정읍 씨 없는 수박 품평회'에서 이용견씨가 재배한 수박이 대상을 차지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품평회에서 심사위원들은 당도와 수박무늬, 맛 등을 공평하게 심사해 6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을 차지한 정읍면 이씨의 수박은 당도 10.85 브릭스, 무게 10.5kg으로 높은 당도와 일정한 과형, 수박 고유의 두

렷한 무늬와 색깔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상은 태인면 김태견씨, 은상은 복면홍석용씨, 동상은 고부면 김현정씨, 왕수박상은 정읍면 김연식씨, 별난수박상은 입암면 전성권씨가 각각 차지했다.

행사장에서는 씨 없는 수박을 특가 판매하고 지황, 베리류, 자생차 등 정읍 특산물 홍보와 시식도 진행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